

교 회 목 요

신명한 예배
전국일동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사 26:18)

어는 내게 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골 3:3)

대한예수교 협회 총헌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총헌교회

THE WEEKLY CHONGH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1차 청지기총회에 대하여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미리 독상하는 둘째 날 메시지 - “깨어지는 기쁨”

2003년도 청지기총회 둘째 날에는 마가복음 2장 1절~5절의 본문과 “깨어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게신 소문이 들리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도 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게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막 2:1~5).

기독교에 있어서 깨어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짐과 기쁨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한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본문에 나타난 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네 사람의 경우이다. 그들은 남의 지붕을 뜯어낸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을 수리하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예수께서 전하시는 설교에 도취되어 정작 도구는 필요없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때, 네 사람은 지붕에 구멍을 내는 매우 비정당한 방법으로 병자를 도와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네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막 2:5)!

깨어지는 기쁨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난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출항한 배가 파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파선은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고, 결코 파선되지 않는 노아의 방주로 옮겨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배를 만들어 항해하며 그 배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한 이들은 배를 위협하고 삼키려는 풍랑과 물결을 결코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사 64:6).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인생이라는 항해에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은, 마침내 파선해버리고 말 자신의 배를 버리고, 시몬으로 향하는 영원한 배로 옮겨타는 일이다.

또한 ‘마가’는 이러한 깨어짐의 기쁨에 대하여, 육함을 깨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기쁨을 누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까지는 부정한 죄인과 절을 걸어왔지만, 자신의 전부인 육함을 깨뜨린 이후로는 향유처럼 순전하고 정결한 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막 14:3). 가장 귀중한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깨뜨릴 때, 가장 값진 천국의 기쁨이 영혼에 밀려들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깨뜨릴 때, 천부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야 할 이유가 없어지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 그가 육체를 깨뜨리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를 깨뜨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유익한 희생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고린 11:24). 이것은 그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영원하신 사랑이다(사 34:19, 20, 22). 그러므로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해보라. 진실로 그 순간에 우리의 발목에 채워진 죄악과 인생의 수고라는 착고와 산산이 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달고 오묘한 기쁨 / 1월 31일 금요일

십자가의 승리(The Triumph of the Crucified)

지난주 금요일로부터 시작한 강의는 앞으로 대략 일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생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와 사도들의 사역, 교회의 탄생과 소망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생이라는 주제 아래 신약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펴볼 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족속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복종케 하는 임무(고린 15:28)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위탁하셨다(고린 1:2).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연구하며,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등을 살펴볼 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의 심령을 빛과 기쁨으로 채울 것이며(사 97:11), 밝은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막 4:13).

1부 예수 그리스도 : 위로부터 임하신 돌은 해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다(눅 2:14). 바울은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했다(행 26:6).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몬’은 예수에 대하여 아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설명했다(눅 2:25, 30~32). 진실로 이시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빛이 되신 메시아는(사 9:2), 육신을 입고(딤후 3:16), 종의 모습으로(빌 2:7), 비천하고 가난하게 오셨다(고후 8:9).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시요(요 1:14), 비록 인생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으나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셨다(행 3:14~15). 진실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빛이시다(요 1:4).

1 세상을 바꾸는 신령한 메시지

1. 하나님의 아들 -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사가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었(눅 1:8~13). 이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4절, 17절의 메시아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서,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오래 전에 예고된 약속이었다(말 4:5). 메시아가 곧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세례요한의 탄생! 그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인 것이다(말 3:1).

2. 다윗의 자손 -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중에 건장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 소식은 오래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언약되었던 것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다(대사 17:11~15). 즉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단이 예언한 지 7백년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이다(눅 1:32~33).

3. 구원자(구세주) - 예수 그리스도

요셉에게 세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사가가 예언한 대로(사 7:14),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마 1:21~23). 그러나 세 번에 걸쳐서 선포된 천사들의 소식은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간의 목자들이 들었던 메시지 안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은 이시야의 예언의 성취이며(사 9:6),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말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말 3:1).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사기랴와 목자들’, ‘임마누엘’과 ‘엘리사벳’,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과 ‘한나’를 통해서 증거되었으며, 그분은 ‘오실 이요’ 돌은 해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이다(눅 1:67~71, 1:78~79, 2:28~32, 2:11).

BELIEVERS' REST

(Hebrews 4:1-5)

"Therefore, let us fear if, while a promise remains of entering His rest, any one of you may seem to have come short of it..."

Entering God's rest is a very important matter. If we spend our whole lives believing, and don't enter His rest, then our lives were for nothing. Think about it. What's the benefit of believing in Jesus if we can't enter God's rest? The Bible clearly explains that believers need to enter God's rest. 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Heb. 3:15). "They" refers to the Israelites. During their exodus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they ate manna and drank water, which God had provided for them from heaven to earth. Every single day of their journey was in the presence and care of God. They want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eir goal was to enter it, and God provided everything they needed to do just that. Yet, all they got was a curse. They were not able to enter because of unbelief (see Heb. 3:16-19).

God promises believers today that they may enter His rest, "Therefore, let us fear if, while a promise remains of entering His rest, any one of you may seem to have come short of it" (v. 1). Here we find one of the most vital warnings: fear and failure. God's promise is there but some may fail to experience it because of unbelief. Believers have to be extremely careful because we can easily fail. Any one of us can fall short of God's rest. As such, let us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fear, the promise, and the potential failure of God's rest, so that we can enter through faith.

Who is supposed to fear? Believers are to fear. Like the Israelites, we hear God's voice all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traveling in the desert from Egypt to the Promise Land, God's voice surrounded them. As we travel from this cursed earth to the heavenly kingdom, God's voice encircles us. The Israelites were commanded to follow Moses; we are commanded to follow Jesus. The Israelites heard the good news all the time, just like us, but that word didn't

benefit them because they didn't harmonize their hearts to it. "For indeed we have had good news preached to us, just as they also; but the word they heard did not profit them,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in those who heard" (v. 2). I came to this church more than five years ago. During this time, I have preached nothing but the gospel. If you haven't believed in the Word you've heard, then it didn't profit you because it wasn't united by faith. If you continue on this path, then you cannot enter God's rest.

I preach all the time about Jesus and the cross. Many people have responded that they already know about the cross, and of course, Jesus Christ, what they want to hear are sermons that will teach them how to live on this earth successfully and respectfully. They don't want me to ignore our environment and society. They criticize me for being stubborn and single-minded. Honestly, this is what I hear so often. Let me tell you, Jesus is real. He is the Son of God! I specialize in preaching Jesus and Jesus only. The Holy Spirit constantly and consistently talks to us all the time, telling us to ignore the world and listen to His message, His Word. "But I am afraid that, as the serpent deceived Eve by his craftiness, your minds will be led astray from the simplicity and purity of devotion to Christ" (2 Cor. 11:3). Don't be deceived! Pride and selfishness make you want your own living style and your own way of life. It takes you away from the word of Jesus. "But now that you have come to know God, or rather to be known by God, how is it that you turn back again to the weak and worthless elemental things, to which you desire to be enslaved all over again? You observe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I fear for you, that perhaps I have labored over you in vain" (Gal. 4:9-11). For five years you have heard the Word of God, please don't let it be for nothing. Please fear His Word and take the gospel seriously. The Israelites saw, heard, and even took in their mouth God's miracles; yet they didn't enter the believers rest. Please fear God and His Word.

The divine promise still holds good. It still applies to us as it did to the Israelites. The Word of God is God's promise. We still have the Bible, belief, our lives, and we still hear His voice all the time. His promise is there. He wants to take us home in His second coming.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enter into His rest (see Dt. 3:20). He is faithful, "God is faithful, through whom you were called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1 Cor. 1:9). His promise is there. He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through His Son. God's promise is solid, "For when God made the promise to Abraham, since He could swear by no one greater, He swore by

himself, saying, 'I will surely bless you and I will surely multiply you'" (Heb. 6:13&14). God's promise is an unchangeable oath (see Heb. 6:16-18). Thank God that His promise remains for us. He beholds us patiently until we enter.

Don't be a failure. You may go to church, read your Bible, pray and tithe, but if you complain and hardened your heart, then you cannot enter. All the Israelites wanted to enter their rest, but they wanted to enter their way and through their method. Their way to Canaan consisted of complaining, selfishness, and earthly things. They wanted the physical pleasures of stupid things over and against God's provisions. God said, "When your fathers tested Me, they tried Me, though they had seen My work. For forty years I loathed that generation, and said they are a people who err in their heart, and they do not know My ways. Therefore I swore in My anger, truly they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Ps. 95:9-11). God gave them manna and they wanted meat. The children of Israel challenged God's authority over them by their rebellion in the wilderness. Because of this, they failed to enter into the rest of dwelling in Canaan and they perished in the wilderness.

When humans don't believe the Word of God, they always fail. God's promise becomes a curse. Almost all the Israelites fell down in the desert and couldn't go to His rest. The dangers facing us are the same as Israel's experience. The enemy is all over, watching us. Please don't change your blessing life into a curse like the Israelites. "Take care, brethren, that there not be in any one of you an evil, unbelieving heart that falls away from the living God. But encourage one another day after day, as long as it is still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will be hardened by the deceitfulness of sin" (Heb. 3:12&13). Today, my friends, if you listen to His Word, don't harden your hearts. Remember the disobedience of Israel and be diligent to enter His rest. Fix y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Amen.

So, my dear friends, this is the second Sunday of February. Already a full month has passed in this year of our Lord 2003. We started with God's Word and we have to keep our faith until we enter His rest. If a believer cannot enter His rest, that's the saddest thing in the world. Focus on Jesus. God's rest comes to the believers who completely rely on His promise and fully surrender to His will. Jesus is our leader, our Lord and Savior, and if we follow Him, He will bring us into God's rest. Please follow Him and trust Him. His way is the only way. Hold on to Him until you reach His kingdom. God bless you. 🙏

성도의 안식

(히 4:1~5)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



김성관 목사

이스라엘의 불신앙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생애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히 3:15).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보호하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히 3:16~19).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자신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 이 구절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경고는 두려움과 실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신자들도 안식을 얻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화합으로 얻는 안식

누가 두려워해야 하고도 생각합니까? 신자들이 두려워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받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왕국을 향하여 여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도록 명령받았듯이, 우리 역시 예수를 따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좋은 소식을 들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과 바 말들이 적회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고 2:13).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동안 들었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

저는 언제나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미 자신은 십자가와 그 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반응하면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 즉 신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설교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우리가 치한 현실과 사회를 무시하고 저 말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고집이 세고,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오직 예수만을 전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무시하고, 오직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으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니라 부패함까 두려워하라”(고후 11:3). 속지 마십시오! 교만과 이기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로부터 멀리 떼어놓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혜에 속노라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회례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갈 4:9~11). 5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디 이것이 영원히 잊지 않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와 허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누리게 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언약

신적인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친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 믿음,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나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리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셨습니까(신 3:20 참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태버막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신도”(고전 1:3). 그의 언약이 바리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입니다. “사람들은 자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라 맹세는 저의 모든 마무는 일에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

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파하여 가는 우리로 큰 권위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히 6:16~18).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여전히 유익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언약에 들어오기를 인내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을 필요로 함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과 십일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완고함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불평과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거절함으로써 유체적 쾌락의 어려움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라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라 하였으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라”(시 95:9~1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사를 주셨는데, 그들은 고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린아이고 같이 언약에서 광야에서 불순종의 행동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안식의 기회를 상실했으며, 광야에서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수는 도처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삶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흑 나뭇의 중에 누가 먼저 여니하는 악의를 품고 삼가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직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배교 피차 편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하게 됨을 면하라”(골 3:12~13). 사방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십시오. “믿음의 주와 또 온전케 하시는 이런 인애를 바라보라 저는 그같이 있는 줄을게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아멘.

예수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2003년 올해의 한 달도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시작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시는 믿음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만일 신자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요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를 따르기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아멘.

왜, 외선부 사역이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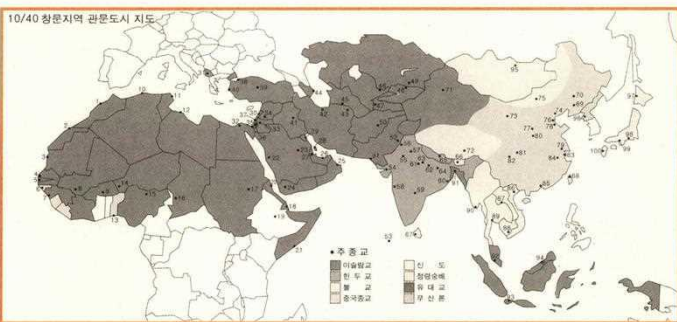
WHY IS THE FOREIGNERS MINISTRY IMPORTANT?

◆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상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10/40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에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40장이란 북위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으로 지구 전체 땅의 1/3에 해당하는데, 세계 인구 2/3 가량이 살고 있으며, 64개의 독립국가와 비 주권 종속국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 97%가 이 지역에 산다.
2. 세계 3대 종교가 몰려있다.
 - * 이슬람교 : 28개국 11억
 - * 힌두교 : 1개국 10억
 - * 불 교 : 8개국 2억 3천 7백 명
3. 전 세계 국민교 82%가 10/40장에 분포되어 있다 (GNP 500% 미만).
4. 가난하고 복음화되지 못한 나라 99%가 이 지역에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약 30여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바로 이 10/40장에 속하는 미전도종족입니다(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터키 등 중앙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10/40장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등 거의 복음을 접해 보지 못한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이방신들에게 복종하고, 그 경전을 외우며, 그들의 신이 오직 유일한 신인 줄 알며 섬기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바다를 건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들어온, 수용성이 강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이방민족 중 한 생명을 전도하여 제자화하면, 그 한 생명이 가족과 친구와 또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열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천령교회 외선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선부 지도 김철곤 목사 -

오직 예수만이

강 진 우 (대학부 인도팀)

비행기를 탄 지 8시간만에 인도 뭍마이에 도착하여 첫 사역장소였던 뭍마이에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대학강사는 제 수첩에 이런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Read books of budda, Mohamad and Krishna, Jesus!! They teach the same thing!! They all are Son of God!!" (부처와 모하메드와 크리슈나와 예수에 대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아들들입니다.)

- Yashendra -

힌두 문화의 굽은 뿌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고 신인하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과 같이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을 보며 참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Jesus is the only son of God!! Only Son of God!!"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전하고 또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혼탁한 영혼의 신음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다. 사람과 차들이 한데 엉켜 굴러가는 그들의 교통문화처럼 여러 우상들 속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을 위해, 하루 속히 주님의 영이 이방 위에 충만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던 대학부 단기 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곳에서 항상 부족함들로 고민하며 걱정해야 했습니다. 언어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배려 또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며 당신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인도팀을 항상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중으로 굳게 닫힌 그들의 집을 찾았을 때, 결혼절차며 전도지를 주려는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주님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만 채워주셔서, 말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날, 인도 땅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영혼들의 마음 속에 떨어질 때, 이 곳을 억눌렀던 많은 우상들이 불타 쓰러지듯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첫 도임을 만들어 주시고 사역이 끝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위로하시고 능력 주셨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③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간총회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으로 갈 예정입니다. 안그렌 지역은 최근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역으로 고려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기에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적어도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 상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2.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요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팀구성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식구들을 만나 선교에 대한 도전도 주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지역 식구들이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들어주시고 허심한 함께 해 나가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재확을 꼭주세요.

작년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통해 중보 기도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금요일 집회를 드릴 때 품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드리는 경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 더욱 힘있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그렌에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문효식
교구 : 4교구
지역명 : 6지역

4.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단기 선교팀을 이끌겠습니다.

5.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를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임정식 기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훈 휘 (고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행사 준비로 인해 마음이 분주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향해 꿈꿔왔던 것을 다 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랑'. 이번 2003년도에는 이 사랑의 초석을 닦기 원합니다. 주님께 본받아야 할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아직 선후배간이 서먹하고,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이 서로를 모릅니다. 관심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원하시기에(요 13:34) 이 '사랑'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 교회에 오지 않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나구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갈 2:20).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작은 기도의 손길들이 하나님께 상납되길 바랍니다. 이리주실 것도 믿습니다. 겨울 때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헌신하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등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하여금 나를 봉사부로 이끄셨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수련회 때에,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셨다. 눈물로써 회개했다. 흠없는 어린양께서 나의 죄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 가운데 화경하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그 여름 수련회 이후,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나에게서 잊혀져갔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교만해지고 있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나 자신을 높이고 있었고,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들을 보며 나를 의인이라 칭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한없이 교만해졌다. 나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나는 다시 거부했고, 그 곳에 우상들을 채워 넣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죄짓기를 반복하는 사사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에서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았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분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얻었다. 우상으로부터 가득 한 성전을 주님께서 허무셨다. 이제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제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살아가신다. 나는 새것이 되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아버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게 하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이제 다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받으소서.

박경훈 (고등부 2학년)



십자가를 생각하라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가 된 선배가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봐!" 그 선배가 그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 작년 고등부의 '코이노니아의 밤' 때 내가 있는 부서인 봉사부는 리하설을 준비하면서 갈릴리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성극부의 부탁으로 성극 소품인 대형 십자가를 복지관 지하 2층에서 갈릴리움까지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것이 너무무슨 얼마나 무겁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만만하게 보았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상당했고, 우리 6명은 굉장히 힘들게 십자가를 옮겼다. 그 일 이후로 그때 함께 십자가를 들었던 선배가 봉사를 할 때 힘들거나 지쳐있으면 "십자가를 생각해 봐!"라고 장난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곤 했다.

얼마 전, 고등부 수련회를 맞게 되었다. 수련회 부흥회 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란 말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다. 장난삼아 하던 말이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외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죄를 모두 담은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피할 것을 피하셨을까?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다.

나를 대신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지 호근 (고등부 2학년)

성도의 죽음 준비하기

죽음 이후 2. - 영생

지금까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성도는 죽지 않는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요 4:14). 그 조건은 서로 간단하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요 5:24)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 하셨다. 이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창 21:33).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처럼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다(시 133:3).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가로막았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도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축복만을 원했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혈몬의 미술이 시몬의 산들에 내릴 갈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3). 하나님은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요 6:54).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빵을 주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는 인간은 죄로 가득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21). 근본적으로 죄로 물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기 때문이다.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한 모든 의심적인 마음을 버리라. 영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쳐 놓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나태함을 버리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영생에 맞춰야 한다. 그리하면 죽음은 우릴 위협할 수 없다.

(권오섭 기자)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7편 - 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도. 자식은 여호와
의 주신 기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화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니라”(시 127: 2-5).

본문은 자식을 만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
고 인간의 사랑을 불신하면서, 신앙심 없는 투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의 처절한 노력과는 반대되는 선물입니다. 출산과 번식의 기적은 우리의 참여를 요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의 창조라는 틀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사랑이라는 일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자녀라는 말을,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모두를 대표하는 것
으로 이해시키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으나 사랑으로써 우
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마 12: 46-50). 또한 자신의 일과 관련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요 17:4)이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
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시편을 연
계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딸과 아들, 자매와 형
제들 늘려가야 합니다(마 28:19).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지 않으
면 이 모든 일이 허사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는 일 자체로써 생명이냐 의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온전
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최초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 많은 노력
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순례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성에
오르기까지 아무리 고생이 심했고, 아무리 영웅적인 행보였도 해도 그것이 찬양거
리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
나하시면...”. 우리의 노력은 주변적인 것이고 중심에서 일한 분은 따로 있으며,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시편 127편은 힘주어 선포합니다.

(영혜원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남정숙 성도를 소개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딸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언
니의 신앙생활은 옆에서 보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생
활이 바쁘고, 성품이 좋아졌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이어서 6개월간의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개근으로 마치고,
새벽기도예배에도 참석하러,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언니를 보면서, 저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 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는
성경 말씀의 기본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원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는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찬송가 318
장은 나의 간증과 같아서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믿음
의 선배들이 말씀을 배운 후에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지에 대해 더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순정 통신원)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5	유보란	19	대학부	박원희(17)	113	김경자	5	소방부	한정숙(5)	121	김현지	13	대학부	
106	김영옥	1	장년부		114	이양종	5	장년부	김영달(2)	122	이화연	12	청년부	장진혜(13)
107	이문희	1	청년부	열진이(1)	115	유준성	5	장년부	김지현(1)	123	최영환	19	대학부	정무선(15)
108	이정옥	1	청년부	구원삼(1)	116	조광현	8	청년부	정윤종(2)	124	홍희재	19	대학부	황혜진(5)
109	이미희	1	청년부	열진이(1)	117	김현원	13	장년부		125	설산아	19	대학부	김교성(4)
110	장자윤	1	청년부	윤영옥(1)	118	장한주	13	장년부		126	이영랑	19	고등부	이덕진(1)
111	김지연	2	청년부	구원삼(1)	119	김경자	19	고등부		127	김정현	19	고등부	이민형(2)
112	윤종관	2	청년부		120	김정현	13	청년부		128	김정수	1	장년부	이진규(6)

※ 순종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양모실

7교구 성미선 집사(여45세) 왼쪽 귀 달팽이관 손상으로 왔던 청력이 어느 정
도 회복되었습니다. 서서 걷기가 잘 되지 않아 보행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교구 기용영 성도(여25세) 이식된 골수가 몸에 잘 적응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달 22일 골수이식 수술 후 무관실에 입원 중입니다.

13교구 이리나 성도(여13세) 급성 임파선 백혈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백혈구 수
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숙진 성도(여43세) 면역성결막
폐결핵으로 입원 중입니다. 치유가 까다로운 병이라 환우가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
다. 환우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배우자
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 다음 주일 찬송

23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송은 작곡가 존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가 1894년에 사랑과 찬
양의 노래집(SONGS OF LOVE AND PRAISE)에 처음 실은 곡으로 태어난 지 6주만
에 시력을 잃은 크로스비(Fanny J. Crosby, 1820~1915)가 작사하였다. 육신은 평
생을 흑암과 가난에 시달렸지만 영혼은 오히려 점점 더 청결하게 된 것처럼 그녀는
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어린 나이에 영적 전리를 가득히 간직하게
되었고 그것이 쉽게 잊어지지 않게 되어 흘러나왔다.

1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이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되

2절: 구름에서 울리면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보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와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3절: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울고 고대하고 있겠네

지혜롭고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보되

4절: 영혼들을 시몬성 문 뜰아서 다님 때 천로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근에도 맞추어서 세노래를 부를 때 새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후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지국을 보아 있겠네

친구에서 주님을 친히 봐올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신있고 힘있게 찬양해야
한다.

(전망위원회)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
암아 구하셔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반갑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계 만방을 선교지로 정해 놓고
2002년에도 1000명의 선교단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오나 많은 영혼
의 수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또 한 손에 복음의 씨를 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
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 사역이 이어질 때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보내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그 모든 일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음을 간증하며 당신께 영광 돌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택하시어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을 순
종하며 철저적인 사랑 다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찬송하며 십자가 지고 예
수님의 부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민 무덤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민 무덤까지 확인했으니 땅갈까지 가서 내 복음
의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켜가게 되리니 두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문
당하신 예수님을 문밖에서 세워 두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참 사랑이신 그 분을 마음 속에 모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믿음의 보고서를 생
명의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형주-집사, 장년부 3교사

현웅이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

신 성미 (집사, 유아부 조현웅 엄마)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유치부 열매2반 이예스터 아빠

작은 입 벌려서 예배에 찬송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

1월 19일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현웅이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큰 아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시험을 주셨고, 그 후 7년만에 현웅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듯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했었는지 현웅이는 관병치레가 많아서 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친정 엄마가 날 위해 밤 새워 기도하던 생각이 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머니의 고통을 아이를 통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유난스럽게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못했던 현웅이는 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그런 현웅이가 유아부에 올라오면서 유아부 선생님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 엄마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유아부실 앞에서 매주 울던 현웅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고,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면 나를 의지하느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선생님이 말했는데 선생님과 예배드릴 때는 참 잘 드렸다. 울던 현웅이도 집에 오면 예배시간에 배운 찬송을 혼자서 흥얼거리기도 했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현웅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고맙다.

물론 선생님을 믿었기에 쉽게 말했지만, 1년 만에 의젓해져서 성가대에 혼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1년 동안 얼마나 컸는지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면 내 무릎에 앉아 구역 예배 인도를 힘들게 했던 현웅이가 이제 성경 찬송을 듣고 빨리 예배 드리고자 계속하고 늘 찬송을 부르는 아이가 되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아이를 통해 알았던 나는 다시 한번 현웅이를 통해 알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힘든 가운데도 이런 생명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보수를 받으며 하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일 텐데, 주의 일기기에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



6년 전 성가대에서 구경 날 태어나 미처 우유를 준비 못해서 계속 울기만 하던 내가 벌써 유치부에서도 열매반이 되어서 꽃반 동생들의 언니가 되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계속 짜증을 부리며 유치부에 참석하던 에스더가 이제는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기뻐하다. 이제는 가정 예배 시간에 오빠 다니엘처럼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 순서 붙이는 대표 기도도 잘하는 에스더가 아빠는 무척 자랑스럽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기도를 받아왔고 세상에 태어나 지

금까지도 기도를 먹고 잘 자라는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유치부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울고, 성가대 연습이 힘들다고 안하는 에스더를 보면 아직도 어린 애기 같은 생각도 든다.

아빠는 나날이 달라지는 에스더를 보면서 유치부에서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성경 말씀도 잘 듣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부르고, 친구들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는 에스더가 될 것을 믿는다.

아빠는 올해도 에스더가, 첫째 ‘가족 예배를 하도록 배워서 읽고 드리기’, 둘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웃을 돕는 생활 하기’ 등 우리 가족이 올해 초에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다.

사랑한다.

지난 주 요일에 만났지!

부흥의 길 (느 1:3-7)

이미 예고되었던 예루살렘 성(城)의 멸망!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 그 슬픔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형제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고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영혼은 탄식과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올랐다. 급식하며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가슴 속에서 솟아났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연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자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고와 되었다. 심지어 ‘산발랴’와 ‘도바야’의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 1:5~7).

- 부흥은 고난 속에서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성이 폐회되고 성문들은 소회되었다는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했다. 민족적 고통을 가슴에 품어안고 회개로 시작된 그의 신실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느 1:6). ‘아닥사드다’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의 신실한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의 고와가 되었다. 심지어 ‘산발랴’와 ‘도바야’의 비웃음과 모략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의 간절함은 사단의 심장을 꿰뚫는 날선 검이었다(느 4:4, 9). 그러므로 참된 부흥이란 고난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한 신실한 기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이다. 단순히 감정의 충족이나 만족이 아니라, 죄악과 악한 원수의 쇠사슬을 우리의 몸에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같이 응답하심이다.

- 성경속의 예들

우리는 고통 또는 피로로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열매를 맛보는 이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야곱’의 신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서’의 결단을 피하게 했으며(창 32:24~30), 사투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삼상 15:11, 29). 그 누구보다 예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마 6:12),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눅 22:44). 어디 그뿐이라! 육에 갇힌 베드로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곧게 닫힌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다(행 12:5, 7).

- 부끄럼이 없는 깨끗한 기도를 통하여

부흥은 부끄럼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심한 심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대시 51:17). 삼 년동안 밭갈 섬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각 사람을 보살피던 사도 바울(행 20:26, 31)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처럼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생명의 씨앗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시 126:5~6).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열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참된 부흥의 근원임이 분명하다(렘 9:1, 18).

- 급식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시야’ 선지자는 주께서 기뻐하는 급식은 종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러 주며, 담배에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켜는 것이라고 말했다(사 58:6). 진실로 그러하다. 이시야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급식은 그로 하여금 이상 중에 주의 친사와 대면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며(단 9:21~22),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 주는 예지의 열서가 되었다.

- 죄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죄의 범죄함을 고백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었고(느 1:6, 7),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온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돌아보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는 포로귀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단 9:11, 18). 진실로 우리의 죄과가 크지만, 그 어떤 죄악이라도 주의 보혈은 씻기지 못할 죄가 없다(요일 1:9).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절대적인 중책을 거스르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된다(행 16:31). 영혼의 참된 부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벗어지는 참된 안식과 쉬움을 얻는 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날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랴!

교 회 소 식

일 령

1.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2003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이 23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교를 원하는 성도들은 당당교역자에게 9일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 임

1. 2월 정기대회

일시: 5일(수) 오후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경찰전도회 참여회

일시: 9일(다름주일) 15:30

장소: 배다나눔

3. 안수집사 참여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4. 전사 1차회 참여회

일시: 5일(수) 오후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사전 할영안내

2003년도 사후 직분자 요일에 개재함

사전할영이 있습니다.

대 성: 시무관사·교목학교장·전도회 회장

장 소: 전사화살문(114호)

시 간: 매주일(오전8시~오후4시)

기 간: 2003년 2월 2일 까지

만도린 연두대 봉사자 모집

기타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연희(☎09-557-4429)

충현어린이집 보조교사 모집

세례교인으로 25세 이하의

유학성 또는 아산대학교(생관련학과) 학위

가득받은: 충현어린이집 ☎ 552-8200, 교209

전도위원회 남·녀 전도회

하반기 회개강사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회개강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강사기간: 2003년 1월 첫주~2003년 2월 마지막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7월~12월

3. 대상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6층)

4. 준비서류: 신상표 2매(2002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외선부 교사 모집

1. 자격 - 등록 세례교인으로 자량충만·심신양

·해당국가 언어 가능한 자

2. 모집 대상국가 - 몽골, OS,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베트남, 태국

3. 연락처 - ☎ 552-8200, 교208

이성식 전(☎09-233-5754)

충현기도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계로 통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청정한 품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⑥ 교구별 대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민중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구위원회 첫 헌신예배

일 시: 2003년 2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

주 관: 1교구, 9교구

2003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

일 시: 2003. 2. 12. (수) ~ 14. (금)

오류 7시

장 소: 충현교회 본당

강 사: 김성관 위임목사

2003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9일 (주일)	15:00~15:50	1교시 성경개요 (김용석 목사)	교육관 309호	교목관 (김교목 목사)			
	2교시 기독교론 (이정환 목사)	교육관 309호	유아관 (유아관 목사)				
2월 16일 (주일)	15:00~15:50	1교시 기독교개요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관 (이수근 목사)		유아세례관 (안정환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301호
2월 23일 (주일)	헌신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헌신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배다나눔)		

이번주 새벽기도회 달랑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종대/이형수	정현민/박종학	김동하/김진국	서광진/이종우	여성기/권영진	김영훈/안태순

다음주(2/9~15) 예배 달랑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I		이성록	김의철	안식 (하 4:1-11) 나팔령 목사
II	주 예수 다스리시는 의 / 소프라노 김승자(찬양대 솔로리스트)	정진호	전종철	안식하는 그날까지 (하 4:18) 서광진 목사
III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의 / 할렐루야 주창단(지도:이수근)	이정식	박덕양	성도의 안식 (하 4:15) 김성관 목사
IV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의 / 소프라노 하숙현(찬양대 솔로리스트)	위관량	최유진	성도의 안식 (하 4:15) 김성관 목사
V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의 / 소프라노 김현이(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덕	김진세	성도의 안식 (하 4:15) 김성관 목사
찬양		김교성	문복식	구약학을 받은자의 고백 (시 107:1-9) 김성관 목사
수요 I		이종대	정길자	나니게서 쓰시는 일꾼 (창 3:1-12) 김성관 목사
수요 II		서광진	이성식	개조지자 (창 4:3) 김성관 목사
금요 집회	복음찬양(대학부 찬양대 / 연합 찬양대)	정현민	이병학	헛기신 주님 (창 19:30)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0:3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2:00(다름주일 제외)	본 당
	V 오후 5:00(다름주일 제외)	본 당
헌신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오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영요집회	오후 10:3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요일 10:00 / 월, 목, 금, 토, 일 7:00
(종로역에서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창 년 1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30	교육관 110호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III 오전 11:00	교육관 201호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소 랑 부	오후 12:15	간 릴 리 룸
	II 오전 10:30	제2교육관 1층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예 배 다 부	오전 9:00(매월 1회 10:0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주간교육	충현 복지관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대학 부	오전 9:30	이 번 례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오전 9:30	간 릴 리 룸
고 동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일 4:00	제2교육관 4층			
창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류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성 · 기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집로	■ 위임목사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권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최태민 엄필성 강도모 오정현 이 훈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극근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극근
남순수 정윤식 김영길 문용근 조인재	김교성 이수근 이윤희 안창현 방종영	김교성 이수근 이윤희 안창현 방종영
김종구 최귀주 김진세 이창호 차신득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록 고광환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남 이종식 이병록 안종욱 임무천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이종식 최귀주 이창호 차신득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이정우 김단우 황영일 한승구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정홍식 김갑기 원운철 이형수 안동현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황의만 김형우 최유진 이계인 박덕양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이태식 정태두 박용근 권명옥 조종환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박상진 최지윤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노영현 박진규 정경길 신상수 강철형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고계순 김영은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김광관 위관량 김익환 김성주 장 훈

■ 단기선교

장기선교 (3개월)

합력선교사 하효성 (이탈리아)

교회 오시는 길

